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연을 매개체로 한 기억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 화 학 과

강 민 정

자연을 매개체로 한 기억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 화 학 과

강 민 정

인 준 서

강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써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관화작품 'Sounds of memories' 연작으로 중심이 된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의 기억을 간직한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정지, 변형 그리고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또한, 기억과 연관된 대상(사물)을 주변에서 접하게 될 때, 대상(사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인지 될 것이다.

본인은 어린 시절에 자연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자연(식물)을 가꾸고 재배하면서 자연과 교감 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지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서 작업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인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자연속의 자연(식물)을 대면할 때, 어린 시절의 자연(식물)과 교감한 행복했던 기억들이 연상되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의 그리움이 본인 작품의 형성배경이 된다.

바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꼈던 순간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게 된다. 이렇게 회상된 기억은 회귀의 심리를 만들고 기억의 감정은 대상을 구체화하며, 사물에 개개인이 감정을 이입한다. 본인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식물 소재를 통하여 본인의 내면을 투영시켜 표현 하였으며 자연(식물)은 어린 시절 기억들을 표현하는 상징적 매개체로서 활용한다. 자연(식물)이미지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 그라운드(soft-ground)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자연(식물)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어린 시절 자연에서 경험한 기억의 조각들을 식물로 표현

하였다. 또한 자연소재인 나무판을 이용하여 자연(식물)을 표현함으로써 자연화된 기억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반복적인 중첩을 통하여 시간성을 표현하였고, 공간을 통해서 그리운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상상과 여운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그리움의 공간은 흐린 날씨를 경험한 과거잔상의 느낌을 무채색에 도입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에서 자연(식물) 소재로 상징과 내면의 감정표현을 논하였고 작품사진과 함께 작품설명으로 이해를 유도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본론 | 3 |
| 1. 형성배경 | 3 |
| 1) 어린 시절 자연과의 경험(교감) | 3 |
| 2. 작품 전개 | 8 |
| 1) 기억이미지의 매개체인 자연물(식물)과 자연화된 인공물 | 8 |
| ① 기억이미지의 매개체인 자연물(식물) | 8 |
| ② 기억이미지의 매개체인 자연화된 인공물 | 9 |
| 2) 기억에 관한 상징성 | 13 |
| 3) 행복한 기억의 회귀 | 15 |
| 2. 조형적 요소 | 17 |
| 1) 회상을 통한 중첩 | 17 |
| 2) 상상의 여백 | 20 |
| 3) 과거를 표현한 무채색 | 22 |
| 4) 다양한 기법 | 23 |
| 3. 작품 분석 | 27 |
| III. 결론 | 46 |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 |
|--|----|
| [작품1] Sounds of memories, 70x100cm, Soft-Ground etching, 2011 | 27 |
| [작품2] Sounds of memories, 100x160cm, Soft-Ground etching, 2011 | 28 |
| [작품3] Sounds of memories, 100x160cm, Soft-Ground etching, 2011 | 29 |
| [작품4] Sounds of memories, 100x7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Aquatint, 2011 | 32 |
| [작품5] Sounds of memories, 100x70, Mono Print, Collagraph, 2011, | 34 |
| [작품6] Sounds of memories, 100x7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Aquatint, 2011 | 36 |
| [작품7] Sounds of memories, 100x13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2011 | 37 |
| [작품8] Sounds of memories, 60x60cm, Soft-Ground etching, 2011, | 39 |
| [작품9] Sounds of memories, 30x142cm, 30x60,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2011 | 41 |
| [작품10] Sounds of memories, 60x60cm, Soft-Ground etching, 2011, | 42 |
| [작품11] Sounds of memories-sewing machine, 70x100cm, woodcut, Collagraph, 2010 | 44 |

도 판 목 차

[도판1] 조셉코넬(Joseph Cornell).

<분홍색궁전, Pink Palace>. 잉크세척, 나무, 거울, 식물재료와
Potostat 이 들어있는 나무상자. 1946-48.

[도판2] 주세페 페노네 (Giuseppe Penone).

<녹림의 뿌리, The roots of the forest green>.천과 전선위에
엽록소로 인쇄. 8m. 1987.

[도판3] 주세페 페노네 (Giuseppe Penone).

<그늘을 들이마시다, Breathing the Shadow>, 설치미술. 2000.

[도판4] 단원 김홍도. <매작도>. 종이, 수묵담채. 26.7x31.6cm. 1796.

[도판5] 본인작업. <sounds of memories>. Mono print. Collagraph.
100x70cm. 2011.

I. 서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서로 교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작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본인에게도 자연은 어린 시절 행복했던 일상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 기억들은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의식적 영감을 이끌어주며 작품에 투영된다. 이러한 경험은 작가에게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다. 어린 시절 추억과 심상을 사물에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조셉 코넬(Joseph Cornell, 1903-1972, 미국출신)과 어린 시절 고향의 기억에 대한 자연의 회귀 심리를 표현하는 주세페 페노네 (Giuseppe Penone, 1947~, 이탈리아) 가 그 예가 되겠다. 이처럼 기억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으며 표현 방식은 다를 뿐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 문명, 각박한 사회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져 피폐해진 삶을 느끼는데, 이런 육체와 정신은 마음의 안정, 휴식을 원하게 된다.

본인은 어린 시절 환경으로 교감한 자연(식물)을 매개체로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 회상하며 작업을 통하여 행복한 감정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지치고 고통을 느낄 때, 회귀 하고픈 마음을 가지게 한다. 또한 감정은 회귀를 통해 자아를 찾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어린 시절 자연을 경험한 정서적 교감을 배경으로 하여 자연에서 상징을 보게 된다. 본인은 지친 현대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회상의 회귀를 표현하고자 한다.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 할 것이다.

논문 첫 번째 장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억의 작업인 대상을 배경으로 어린 시절 자연과 경험한 교감을 통하여 기억의 정서를 알아보고자 한다.

논문 두 번째 장에서는 기억이미지의 매개체인 자연(식물)과 자연화 된 인공물을 통해 감정과 어떠한 과정으로 작업의 동기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 예가 되는 작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억 이미지인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 회귀심리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논문 세 번째 장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중첩이 주는 판의 반복적인 표현과 여백에 따른 여운에 대해 서술하며, 색을 통해 감정을 이입하고 조형적인 효과를 표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개인의 경험에 감정과 정서를 동기로 작업을 논하면서 본인의 작품과 비슷한 의도를 가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다. 본인의 논문을 통해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 하였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형성배경

1) 어린 시절 자연과의 경험(교감)

경험은 삶과 예술의 토대로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진다.

존 듀이(John Dewey, 1895-1952)는 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경험’을 중심에 두었고, 예술을 완성된 경험에 대한 본질이라고 여겼다. 그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예술에 대해 말한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에 대한 경험이 갖는 미적 성질을 발견하기 위해 그러한 사물에 대한 경험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중략)있는 그대로의 경험이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라면, 이미 다른 어떤 경험양식에서 유래된 대상보다 미적 경험의 내재적 본성에 단서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¹⁾

삶은 환경과 살아있는 생명체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경험은 계속 일어난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의 기억을 불러온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인간은 지나간 삶 속에 기억하는 감정들을 찾기도 하는데, 이러한 감정 경험은 기쁨, 슬픔, 노여움, 사랑, 미움, 바라는 마음, 즐거움 등이 있다.

본인에게는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 대한 기억이 특별하게 남아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재와 달리 나무와 꽃들과 동물들과 체험하고 교감한 정서가 깊게 남아있었다. 나의 어릴 적으로 돌아가 보리라.

1)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 책 세상, 2003, P.28-29.

어린 시절 나의 기억은 집 앞 마당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계모양인 정원에는 풀을 뽑고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다. 수돗가 옆에 빨간 목련과 하얀 목련이 있다. 정원 한편에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그네를 타는 언니들과 벽을 기대어 주인을 기다리는 자전거가 있고, 다른 쪽 정원에는 할머니의 오랜 재봉틀이 소품처럼 창고에서 정원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반복 하였다. 풀밭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오빠가 있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동물원에서 볼 수나 있는 커다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안에는 사슴, 공작새, 노루가 있고 저녁에만 오는 이름 모를 도둑고양이와 나무를 길 삼아 찾아오는 다람쥐 이 동물들을 보려면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다. 나뭇잎과 꽃향기들이 가족과 동물들을 기분 좋게 만들며 바람이 피부에 닿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정지하고 행복한 모습만이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었다. 바람이 지나간 후 상큼한 풀잎향기를 느끼며 시간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아침, 저녁 마다 사슴 먹이인 아카시아 잎을 준비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다. 아카시아 나무가 나오는 계절이면 앞마당에는 아카시아 잎을 따온 일꾼들이 줄서 있었다. 서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헛간에는 지푸라기대신 아카시아가 산처럼 쌓여져 있었다. 나와 형제들은 아카시아를 침대삼아 눕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였다. 5월이 되면 바람에 실려 오는 아카시아 나무향기를 맡을 때마다 어릴 적 아카시아 헛간에서 놀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다.

시계정원에는 1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있었다. 그 종류로는 오동나무, 단풍나무, 목련나무, 과일나무 등이 있고, 꽃과 텃밭, 강아지풀과 잔디가 있었다. 씨앗과 묘목을 심기도 하고, 잔디가 올라오면 잔디에서 놀기도 하고 잔디의 잡초도 뽑았었다. 가을엔 배와 감, 대추를 따기도 했었다. 나무 곳곳에서 곤충들도 만나기도 했고... 가족은 순번을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와 식물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물을 주어야 일상이 마무리 되었었다. 마치 내가 식물원에 있는 정원사가 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오동나무와 단풍나무였는데 이 나무 안에 영혼이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여 대화를 했었다. 나무 중 제일 큰 오동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2층인 우리 집 보다 키가 더 컸었다. 할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시집갈 때 오동나무로 만든 가구를 가져가야 한다고 심어 놓으셨다고 하셨다. 어느 여름날 태풍이 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오동나무가 잘라졌다. 언니와 나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오동나무를 붙잡고 있었으나 반으로 잘린 오동나무는 결국 죽었다. 지금도 여름태풍이 오면 죽은 오동나무가 생각이 난다.

또한, 단풍나무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나와 언니는 우산처럼 생긴 단풍나무 밑에 들어가서 소꿉장난을 하기도 하고 누워서 단풍을 올려보기도 했다. 정말 비 오는 날 단풍 밑에 앉아 있으면 비를 맞지 않았다. 강아지풀을 이용해 벌레라고 속이기도 하고 왕관을 만들기도 했다. 계절에 따라, 봄이 오는 계절에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에 식물들을 마주 할 수 있었고 텃밭을 가꾸고 생명의 신기함도 볼 수 있었다. 뒷산에 올라가면 원시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식물들인 고사리 잎이 있었다. 여름마다 바람에 밀려오는 풀잎과 등나무의 꽃향기에 취해 휴식을 취하고 가을이 오는 소리를 먼저 알려주는 나뭇잎 소리에 행복했으며 겨울을 나기 위해 그 많은 식물과 나무들을 지하실로 옮기고 보살펴야 일 년을 마무리 했었다.

본인은 위에 언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작업의 배경을 구성하면서 내적 감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내적 감성이란 어떠한 형이 뚜렷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지 과거의 감정의 정서는 모호한 본인의 기억일 뿐이다.

본인에게 삶의 경험적 이미지는 지금 당장의 순간을 제외하고 과거이고 기억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추억과 그리움의 기억에 대해 회상하고 회귀한 자아를 찾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

경험과 경험한 감정은 기억을 통해 연결되어 진다.

기억이란 과거에 체험된 행동들이 어느 기간 동안 보유되어 다음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활동작용이라고 한다. 기억은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학습된 사고, 행동, 의식작용, 반사작용 신체의 유전자까지 기억에 포함한다. 오감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받아들이는 모든 각인이나 흔적을 망라하여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전체가 기억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²⁾ 이렇듯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2) 최민, 『기억과 망각』, 문화 과학, 2000, p.205.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간다.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체험을 현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해석 되어 나타나게 된다.

본인에게 기억은 경험의 내용으로서 작품의 동기를 제공한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순간의 경험까지,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는 소재가 되는 것이다. 본인은 일상의 소소하지만 의미있던 찰나, 평온하고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들을 기억이라는 창고에서 추억할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하였다.

융(Carl Gustaf Jung : 1875~1961)은 심리학적으로 유년 시절 자신의 세계와 스스로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자각되는 상태로 보았고 개인의 정서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감성적인 체험과 기억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무의식중에 남아 예술가에게 영향을 준다. 3)라고 말하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망각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형태로 저장 되었다가 성인이 된 후 비슷하거나 체험한 것과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이러한 경험은 기억을 통해 본인의 작업에 투영되었다.

본인의 환경 때문에 무의식적이었던지 의식적이었던지 나의 기억과 마음 속에 항상 자연이 같이 있었나 보다. 지극히 일상적인 자연(식물)은 본인이 어린 시절 성장해 오면서 주변에 늘 같이 존재하던 것으로써 자연을 통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한다. 작업을 통해 단순히 자연(식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에 대한 그리움과 편안함에 감정을 몰입하고 회상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기억은 어떠한 상황을 되짚게 한다는 점에서 베르그송(Henri

3) C. G. Jung,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이부영 역, 집문당, 1983, p35.

Bergson, 1958-1942) ‘정신적 기억’과 ‘습관적 기억’으로 분류한다. ‘습관적 기억’은 문장 암송과 같은 자동적 되풀이에만 의존하는 기계적, 신체적 기억이다. ‘정신적 기억’은 반복에 의하여 취득되지 않고, 단번에 어떤 분위기의 영상이 나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⁴⁾ 이 기억은 암기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상으로서 인생의 특이한 실존적 사건을 회상하게 해주는 정신적 기억인 것이다. 또한 이 기억은 현재에서는 느끼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간과 연결된 추억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 기억은 과거를 과거로써 회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 자연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한 유사한 시간 때, 날씨, 바람에서 오는 풀잎 향기를 접하게 되거나, 내가 물을 주었던 식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내 감정에 몰입하게 되는 회상의 기억요소이다. 자연(식물)과 인공물들은 본인에게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주요 경험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작업의 소재로 자연(식물)과 경험에서 만난 인공물이 기억의 매개체로 본인의 작업에 반영 된다. 이렇게 표현의 매개체가 되는 자연(식물)과 인공물을 작업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기억의 매개체인 자연(식물)과 인공물이 주는 내재된 상징에 대해 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기억 속에서 행복한 기억을 찾고, 즐거웠던 추억을 환기시키며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매개체를 통하여 회상하고 회귀하는 또 다른 자아를 직면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연구하였다.

4) 김영효, 『베르그송 철학』, 민음사, 1991, p.38.

2. 작품의 전개

1) 기억이미지의 매개체인 자연물(식물)과 자연화된 인공물

① 기억이미지의 매개체인 자연물(식물)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추억이 생기고, 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렇게 저장한 기억들은 존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린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형상을 통해 경험한 것을 각각의 고유 이미지로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일정시간이 지나 대상을 접하였을 때 과거의 기억을 불러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본인은 자연의 순환활동이 인간의 기억과 닮았다고 본다. 기억은 현재의 경험을 통해 생성 되고 소멸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생겨나는 반복적 순환이 된다. 이러한 순환작용을 하면서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자연은 끊임없이 생성, 소멸, 순환, 정지, 반복을 한다. 순환작용은 특정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흩어지고 소멸하며, 그것이 밀거름이 되어 생겨나는 순환적 시간성을 내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Physics)」에서 “시간 자체는 원이며, 모든 사물은 시간에 의해 구별되고, 마치 원과 같이, 끝나면 다시 시작 된다.”⁵⁾ 라고 말하였다. 이런 변화 속에 놓인 자연은 어떠한 것보다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본인에게 자연물은 형상 자체의 것이 아니라 기억의 매개체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러한 의미는 자연이 주는 생명력 때문일 것이 아닐까?

생명력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무관심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생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이나, 인식하지 못하는 일

5) 피터 컨벤시 & 로거 하리필드, 『시간의 화살』, 이남철 역, 범양사,1994,p.27.

상의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과 예술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창조는 대상에 대한 생명력을 주는 것이며 대상의 모방이 아닌 대상에 대한 감정 표출이다. 예술 작품은 느껴질 수 있는 것의 일체라는 의미로 감정을 재현하며 느껴진 삶의 공간적·시간적 구조로 투영된 감정의 이미지들인 것이다.⁶⁾

본인은 감정 표출 수단으로 자연(식물)을 통해 행복했던 기억을 상기시킨다. 어린 시절 시계정원에서 나무를 기르고 가꾸면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었다. 또한 아주 큰 오동나무에는 영혼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만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자연(식물)은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가로수길, 빌딩, 아파트 등 가까운 근처에서 볼 수 있고 길가의 잡초 한 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는 아름답게 꽃 장식을 한 테이블 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은 어머니의 품 같고 신비스럽고 거대한 우주의 느낌이다. 이러한 감정은 과거의 기억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감정의 응집체일 것이다. 본인은 자연(식물)이미지인 대상을 단순하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통해 행복하고 편안한 감정의 기억을 상상력을 통해 다시 재구성한다. 자연(식물)이나 사물들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부여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자연(식물)을 볼 때, 어린 시절 따뜻한 추억의 집, 시계정원, 아카시아 잎이 가득한 헛간과 돌아가신 조부모를 다시 보게 한다. 자연(식물)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응축된 기억의 파편인 동시에 내면적인 삶이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대상인 것이다.

② 기억이미지의 매개체인 자연화된 인공물

우리는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연상되는 대상들이 있다. 이러

6) 수잔 랭거 (Susanne 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고려원, 1990, p.36.

한 대상들은 일상의 평범함 속에 발견될 수도 있고 특별하게 찾을 수도 있다. 대상은 각각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의미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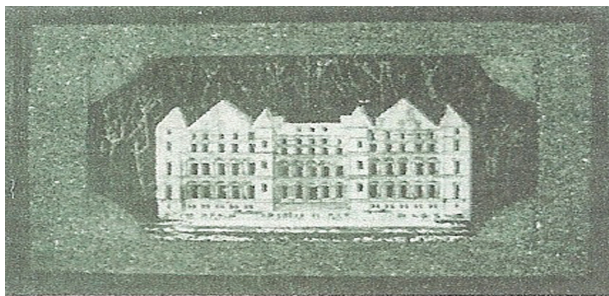
본인은 지나간 기억과 소통하는 의미로 작품 속에서 인공물을 표현한다. 경험 속에서 만난 인공물을 통하여 대상의 기능적, 시각적인 측면 보다 개인의 감성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처음의 미묘한 ‘나’만의 느낌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인공물을 좀 더 객관화 시키며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 할 수 있다. 사물이 기능적 역할에서 소유물로서의 측면을 갖고 특별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러한 사물은 단순한 외형적 의미를 넘어 소유자 개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 주위의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느끼는 지적 능력이나 직관적 감성을 바탕으로 정서를 예술로 승화시킨다. 이렇게 기억의 감정, 정서의 바탕으로 작업하는 작가와 자연과 인간의 회귀를 나타내는 작가인 조셉코넬(Josep Cornell, 1903-1972, 미국출신)과 주세페 페노네(Guiseppe Penone, 1947~, 이탈리아) 작가들을 볼 수 있다.

조셉 코넬(Josep Cornell, 1903-1972, 미국출신)은 버려진 물질들을 개인적인 상자 안에 배열하는 방법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심상을 표현한다. 어린 시절에 잊을수 없는 가족관계에 대한 인상을 간직하며 어린 시절에 흥미와 경험들을 포함하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전에 격지 못하는 고통을 알게 되고 소중한 기억의 시간으로 창조하였다. 개인적 꿈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의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지도, 때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과 깨진 유리조각, 코르크 공, 쇠 조각 등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그의 잃어

버린 어린 시절과 그것을 그리워하는 꿈이 간혀 있는 코넬의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억과 꿈을 상기하며 잃어버린 과거와 향수를 자극하였다. 그 중 오락 극장에 대한 즐거운 기억으로 극장 무대세트와 같은 그의 작품 「분홍색 궁전」 [도판1] 이 있다.



[도판1] 조셉코넬(Joseph Cornell),
 <분홍색궁전,Pink Palace>,잉크세척, 나무,
 거울,식물재료와Potostat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194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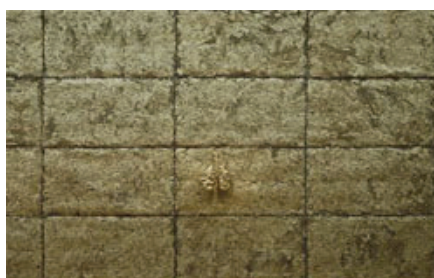
주세페 페노네(Guiseppe Penone,1947~,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전위적인 예술운동인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⁷⁾의 중심에 서서 예술 본질로 회귀를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하였다. 주세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카데미에 입학한 후 미술교육에 염증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의 숲의 나무를 재료로 선택한다. 그의 노트 중에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교감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으며, 지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하게 된다.

7)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작가들도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를 모티프로 사용한다. 흙, 나무 조각, 철, 시멘트, 누더기 형겔 등 일상적 소재를 사용하여 역사나 자연,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비유적인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이다. 아르테 포베라의 작가들은 소재에 가능한 손질을 가하지 않고, 배치하는 방법이나 주위 공간 등을 통해 현실 세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르테 포베라는 지구상에서 생명력을 갖고 자라나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작품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주세페와 나무들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을 형상화 한 작품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녹림의 뿌리>[도판2], <그들을 들이마시다> [도판3] 등이 있다.



[도판2] 주세페페노네(Giuseppe Penone).
지속하게 <녹림의 뿌리,The roots of the forest green>,
천과 전선위에 엮록소로 인쇄,8m,1987.



[도판3] 주세페 페노네 (Giuseppe Penone).
<그들을 들이마시다,Breathing the Shadow>,
설치미술,2000.

본인은 기억과 정서를 언급한 작가에서 추억과 회귀라는 과거의 의미와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재봉틀을 처음 보고 신기했고, 재봉틀에

있는 곡선과 문양의 아름다움에 매료 되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재봉틀은 작동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소품처럼 사용 되어졌다. 시계정원이 있던 집을 떠나던 날 이 재봉틀도 우리와 함께 이사를 오고 또 소품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재봉틀을 보면 할머니와 시계정원의 나무와 꽃들이 자동적으로 생각난다. 이미 이 재봉틀은 나에게 있어서 사물이 아닌 할머니를 보는 것과 같다. 종이배, 조랑말, 종이비행기는 함께 같은 장소에서 체험과 상상을 하고 정서를 교감한 시계정원을 의미하며 이들 각각엔 상징이 부여 된다.

이와 같이 본인의 창조 행위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기억 속의 경험과 자료, 정보를 통해 각자의 표현양식 속에 독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위의 작가들은 표현 방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억을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인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인은 작품에서 과거 환경에 교감한 자연화 된 인공물인 종이배, 조랑말, 종이비행기, 재봉틀로 시간과 감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 즉,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연, 인공물의 요소로 추억의 시간을 바라보고, 매개체를 통해 단순한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순수한 기억의 감정과 상상을 담아내려 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기억의 감정들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순수한 과거의 기억에 대한 감정과 상징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행복한 기억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기억에 관한 상징성

상징이란 사물을 지지하거나 전달하는 객관적 관찰보다는 형상화 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과 내면세계를 통한 정신세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상징은 한 대상을 표현(representation)으로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징들은 의식의 통제 너머에 있는 정신과 교류한다. 인간의 의식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의식의 다른 편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공존해 있다. 인간은 무의식 중에 자연이나 어떤 물체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고 상징으로 변형시킨다. 실질적인 재현과 감정 또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은 상상력이나 감정을 통해서 지각을 전제로 창조한 표현적 형식이며, 그것이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감정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상징’은 개인적인 표현 방식에 감정을 이입하고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에서 자연인(식물)과 인공물을 이용해 재현이 아닌 마음속에 내면의 감정을 중첩의 형상들을 통해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그 중 자연요소인 (식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자연에 대한 경험을 추억하고 시간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상징의 소재는 본인의 회상기억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감상자들의 유사한 기억을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에게 자연(식물)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을 상기 시키게 하는 상징의 조형 요소가 되겠다. 여기서 나뭇잎이 하나가 아닌 여러 장의 나뭇잎을 겹치고 겹쳐 과거의 추억을 보게 되고 그로인한 행복하고 그리운 감정들을 서정적 정서로 표현하였다.

융(Karl G. Jung)은 인간과 상징에서 상징이란 일상생활에서 친숙할 수도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冠禮的)이고 분명한 의미만이 아니라 특정한 함축(含蓄)을 가지고 있는 용어, 이름, 심지어는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창조적인 상징은 분명한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의미의 함축적 표현을 위해 생겨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본인에게 있어 종이비행기, 조랑말, 종이배는 친근한 놀이수단이다. 작품에 감정이입을 통한 회상요소인 인공물으로써 본인에게 종이비행기는 ‘바람과 희망’이다. 다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어린 시절 환경으로 돌아가고

8) 칼 융, 『사람과 상징』, 도서출판 까치, 1995, p.17.

픈 조형요소와 상징인 것이다. 서양의 어떤 속담에서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 한다’고 한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나의 마음과 현대문명에 지친 사람들을 잠시나마 위로하고픈 ‘위로’의 상징을 표현하고자 했다. 종이배는 어릴 적 살았던 나의 집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상징을 내포하였다. 소재들은 각자 개인적 상징의 결과물인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상징을 통하여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과 작품을 전개한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면의 정서를 통하여 지나간 시간을 더듬어 보고 회상하며 어린 본인을 응시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행복한 기억의 회귀

현대 사회의 문명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면서 존재의 상실감과 정신적 고독과 불안, 소외와 상실에 힘들어 할 때가 있다. 또한, 불안이라는 감정은 고독과 소외, 상실감의 심리적인 요인에 바탕이 된다.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각박함, 소외감, 획일 된 반복적인 일상들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건조한 도시 풍경, 현란한 네온사인,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느낀다. 자신만의 안식처는 점점 사라져 버리고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일상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독과 불안, 상실, 소외와 갈등을 동시대에 살아가는 본인도 여실히 현대인들과 같은 느낌을 종종 받게 된다.

본인은 종종 지치거나 일탈이 필요함을 느낄 때 산을 찾는다. 산을 올라가면서 푸름과 마주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에 피로함과 지친 내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본인에게 자연은 에너지를 채워주는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우연히 자연을 접하거나 볼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

통과 상처들이 회복 되고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받게 된다.

본인의 어린 시절 환경으로 가까이 지낸 자연(식물)은 본인에게 행복감과 편안함이다. 자연을 접하고 그 속에 있으면 어린 시절 자연 속에 지낸 그 시간들이 회상 되어 돌아가고 싶어진다. 그저 과거로는 갈 수 없으니 상상과 연민을 담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 할 뿐이다.

본인은 작업을 통하여 행복했던 기억에 대한 회귀로의 출구를 찾게 되었다. 회귀심리는 과거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기억의 세계로 돌아가고픈 심리를 말한다. 본인에게 감정의 회귀심리는 자연(식물)을 볼 때나 조형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자연(식물), 인공물을 바라보며 감정과 기억에 몰입하고 편안함을 경험하였듯이, 표현하는 과정에 몰두하여 감정의 회귀를 느끼는 것이다.

문학 소설 「연어」에서 주인공인 은빛연어는 초록 강에 왔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여태껏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 새로운 냄새는 웬일인지 낯설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언젠가 몸속을 적시고 간 아련한 추억의 냄새,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까?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속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을 것 같은 냄새, 아니면 아버지의 냄새가 이런 것일까?⁹⁾

소설 「연어」의 한 부분에서 은빛연어가 눈 맑은 연어와 헤어지고 초록 강에 가까이 왔을 때 느꼈던 감정이다. 자신이 모르고 있던 강의 기억들이 무의식 세계에 존재해 발견되어 지며 회귀본능을 가리키는 것이다.

본인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봄에 새싹이 나는 시기를 접할 때, 어린 시절 시계정원과 아카시아 잎이 쌓여있는 햇간에서의 놀이와 행복했던 기억을 떠

9) 안도현, 『연어』, 문학 동네, 1996, p.40.

오르게 된다. 자연을 통하여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나마 어린 시절 으
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릴 적 정원은 설렘과 행복이 있
었던 시간들이다. 자연(식물)과 인공물을 이용하여 작품 속 어린 시절의 시
간과 현재의 시간을 통해 자아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즉, 본인은 창작 작업
을 통하여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과편들을 통해
내면의 정서와 감정을 회상하고 어린 자아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와 감정의 매개체인 자연(식물)과 인공물을 대상으로 상징화하
여 관람자들에게 유사한 경험을 상기시키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게도 감정의 회귀심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조형적 요소

1) 회상을 통한 중첩

루돌프 아른 하임은 “중첩은 대상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상들을 통합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물의 물리적인 완전성
(completeness)을 중요시하는 미술가라면 누구에게도 환영 받을 선택의 길
을 제공한다.”¹⁰⁾ 그 예로 세잔의 뒤를 이은 입체주의(Cubism)¹¹⁾ 작가들은
공간에 중첩의 개념을 도입하여 서로 다른 각도의 시점이 한 번에 보여 지
는 듯한 이미지와 시각적인 단편들로 분해하고 재배치하여 이미지를 한 화

10) 루돌프 아른 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p.119.

11) 입체주의(Cubism)란 20세기 미술계의 주요 전환점이 된 사조로서, 이 용어는 마티스가 브라크의 입
체주의적인 풍경화를 보고 ‘이것은 작은 입방체일 뿐 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연유 된다. 피카소, 브
라크, 그리스, 레제 등의 화가들이 이 사조를 이끌었으며, 이들은 “미술은 모방이 아닌 창조 이다” 라
는 신념으로 기존의 미술을 자유롭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흔히 ‘분석적 큐비즘’과 그 뒤에 이어
지는 ‘종합적 큐비즘’으로 구분된다.

면에 함축한다. 본인은 수많은 기억 속에 있는 것 중 생생하게 각인된 정서를 이끌어 동기로 삼고 상상을 증폭시키면서 기억을 표현한다.

어린 시절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아카시아 꽃을 따러 산에 가고 등나무 밑에서 놀다가 벌에 쏘이고 벌레에 물린 사건들, 여름 저녁이면 정원에 모닥불을 피우고 누워 있었던 일들과 여름이면 잔디에 풀을 뽑고, 대나무 사이에서 이름 모를 새가 알을 낳고 부화하고 아기 새들이 줄줄이 어미를 따라다니는 관경, 지붕에 벌들이 집을 지어서 꿀을 따먹다가 여왕벌이 도망가 여왕벌을 찾으러 다닌 사건...

본인은 식물을 볼 때 마다 이러한 사건과 경험이 기억나면서 서로의 기억들이 각각 오버랩 된다. 이러한 사건, 체험 안에는 자연이라는 공통된 식물이 함께 있었다.

본인은 기억의 매개체인 식물을 가지고 위의 언급한 사건과 경험들이 오버랩 되는 기억들을 중첩이라는 기법을 통해 표현 하였다.

중첩 기법은 거듭 겹쳐지거나 겹친다는 의미로 미세한 물성의 겹침을 말하고 있다. 화면상에서 시각적 선택을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 새로이 발견된 관계들으로써 이미지의 숨은 특성을 표출하여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요소들을 재배치한다.¹²⁾ 본인의 작업 [작품1,2,3] 에서 볼 수 있듯이 겹쳐진 이미지들에서 새로운 패턴이 발생하게 되고 중첩을 통하여 겹겹이 쌓이는 색과, 이미지가 가려진 부분은 상상을 유도하며 기억이 쌓이고 또 다른 기억이 쌓여 다른 기억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중첩의 효과는 겹치는 물질을 통해 형태가 묻혀 제거되기도 하고 중첩된 여러 형태가 하나로 통합된다. 중첩 된 판으로 각각의 기억의 의미를 가진 색채는 서로 자연스럽게 스무를 통하여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표현하게 되는 우연성을 발견 하게 되었다.

12) 스벤더, 『작시법』, 정민, 김미혜 역, 일신사, 1977, p.172.

위에 언급한 어린 시절의 사건과 경험들이 연상되면서 각각의 판을 찍는 행위는 반복적인 노동이 요구되는데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노동에 의해 인간은 존재 이상의 생성으로서의 가치를 표현하고, 모든 위대한 작품은 상상력과 의지의 결합으로서 노동의 역사, 물질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내포한다. 화가는 노동자이며 이 노동자, 기호의 영역을 넘어서 의미하는 의지와 결합한다. 화가는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다.”¹³⁾ 라고 말한다.

본 작업에서 기억의 매개체인 식물을 동판에 찍고 부식하며 잉크를 바르고 바탕이 되는 종이 위에 반복적인 이미지를 찍어낸다. 잉킹 과정에서 힘의 강,약 차이를 주고 잉크가 번지며 어우러지게 표현함으로써 톤의 변화와 숨 쉬는 공간을 형성한다. 중첩을 통한 반복적인 행위는 행복한 기억의 생성과 시간의 반복적 흐름을 나타나게 한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 본인 자신의 자아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며 무의식중의 감정표현과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인은 중첩의 효과를 이용하여 기억의 이미지가 평면적이고 정적인 느낌이 아닌 흐르는 시간 속에 과거로부터 차곡히 쌓여진 각각의 기억을 나타내 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란 재료들과의 교감,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교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많이 봐온 식물들을 찾는 과정은 그림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고, 이러한 제작과정은 경건함으로 하나의 창작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다.

13) 가스통 바슐라르, 『꿈꿀 권리』, 이가림 역, 서울, 열화당, 1980, p.27.

2) 상상의 여백

서양의 그림은 이미지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느낌을 주는 반면 동양화의 그림은 명확한 구성은 없으나, 조직상의 명확성이 아닌 그 뒤에 있는 기초적인 명확성에 돌아가는 곳에 느낌이 있다. 다시 말해 서양의 그림은 이미지들의 드러남이며 양감을 표현하고 동양화의 이미지는 드러남에 있어서 기초를 표시해 양감을 표현하지 않는다.¹⁴⁾ 이로 인해 화면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여백은 화면에 그려진 형태와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산수화는 여백을 적절히 남기면서 대상을 압축하는 밀도 있는 구도와 형상을 집약해서 표현하는 묘사력, 기법 등을 표현하여 예술적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여백을 표현하고 기억이미지를 응축시킨 형상과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도판4]단원 김홍도,
<매작도>,종이,
수묵담채,26.7x31.6cm,
조선1796년,
보물(782호),
호암미술관소장.



[도판4]Sounds of
m e m o r i s e ,
100x70cm,
M o n o p r i n t ,
Collagraph,
2011.

14) 김바라세이고, 『동양의 마음과 그림』, 민병산 역, 새문사, 1999, p.123.

본인의 작업에서 여백은 화면의 공백이 아닌 의도가 담긴 여백으로써 많은 의미를 내포하였다. 작업에서 배경을 비움은 이미지를 집중하게 만들며 그림에 있는 형상과 의미를 표현하고 생동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인은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상상 할 때 마다, 혹은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일이나, 사물을 접하게 될 때면 나의 기억 속에는 경험에 의한 특정 이미지만이 남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배경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으면서도 여운이 감도는 듯 한 공백의 부분을 느끼게 된다. 이런 여운의 공간이 있는 화면은 나의 기억 속 이미지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연결시키고, 이런 여운은 여백을 통해 넘나들고 생성하면서 영원성을 보여 주고자하였다.

동양에서 영원성을 적막이라고 말한다. 영원성의 공간으로 둘러싸인 화면은 흥분된 마음의 상태에서 얻어지지 않는다.¹⁵⁾ 이러한 영원성은 화면에서 의식적인 공간을 만들게 하고 꿈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열어준다. 또한 정지가 아닌 정적인 움직임으로, 흐름을 포함하여 시간성을 가진다.

여백에는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小空)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큰 여백은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비어 있는 부분을 예상하여 공백으로 남겨지고 이미지가 있는 부분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 여백을 의미한다. 작은 여백은 대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념이나 의식 없이 화면의 형체 사이에 작게 비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작품2] [작품3] [작품5]에서 볼 수 있다. 작은 여백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된다. 동양사상은 자연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어떠한 사물도 그리지 않는다. '그리기 위해 비운다'는 의미와 같다. 여백이란 화면에 있어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무한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며 보는 이에게 내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여백을 통해 상상하고 내면적인 세계를 소통하는 통로를 표현한 것이다.

15) 위 의책 p.124.

3) 과거를 표현한 무채색

작업에 있어 색채는 작품에 생기를 불어 넣는 조형요소이며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색채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담은 이미지를 통해 형상들을 강화시켜 전달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색채는 이미지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상징적인 언어를 전달하는 매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색채는 이성적인 사고가 설명 못하는 부분을 암시적이고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내포하고, 자체 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내적 울림을 제시한다.

본인은 과거를 회상 할 때면 특정한 색은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 사건들이 흑색으로 보여 진다. 어린 시절 태풍 속에서 오동나무를 잡고 있던 그때의 어두운 날씨와 결국 죽게된 오동나무 때문인지 어두운색이 잔상에 있다. 이러한 어두운 색의 잔상들이 작업에 투영되어 무채색인 흑색을 이루며 각각의 흑색은 조화를 통해 상호 보완 하며 부드럽고 정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반복적인 색의 중첩으로 우연한 효과와 색채의 절제 속에서 내면의 깊은 울림의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유채색 보다는 무채색이 절제(節製)와 함축(含蓄)을 통해 내적 의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색감은 흑색은 유채색이 색을 잃은 무(無)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색을 포함하며 또한 모든 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흑색에는 단 한 가지 검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포함하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가 강하게 작용 되는 것이다.¹⁶⁾

말레비치(malevich,kazimir Severinovich,1878~1935)는 검정색과 흰색을 사용으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에게 흑색은 경험한 추억과 정서를 연상시키며 과거를 회상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흑색

16) 최영훈,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90, p.24.

은 기억이 정지한 시간을 보고 과거에 대한 동경과 사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흑색의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키고 본인 내면을 성찰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소박함의 절제를 표현하였다.[작품 10]

본인의 작업에 있어 흑색과 고동색은 여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따뜻함과 서정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릴 적 흠장난을 하던 기억의 잔상인 고동색으로 이미지를 부드럽게 표현하여 세월의 흐름을 색으로 전달하였다.[작품8] 이로 인해 감정표현요소인 흑색은 본인의 주관적 감정표현과 내면의 심리를 표현 한 것이다.

4) 다양한 기법

본인의 작품은 어릴 적 기억을 식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중첩의 표현 방식으로 조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은 다양한 기법인 소프트 그라운드(Soft-Ground Etching), 아퀴틴트(Aquatint), 모노프린트(Mono Print), 콜라그래프(Collagraph), 목판화(woodcut)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소프트 그라운드(Soft-Ground Etching)는 손으로 표현하기 힘든 대상이나 물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천, 은박지, 실, 나뭇잎등 사물을 찍을 때 유용하다. 본인은 식물의 볼때 어린 시절 정원에서 경험한 기억들이 떠오른다. 또한 자연(식물)을 접하게 될 때 지친 현대문명에 지친 영혼에게 여유와 편안함을 받았다. 이러한 기억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자연(식물)을 표현 할 수 있는 소프트 그라운드(Soft-Ground Etching)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판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동판은 지방을 제거제로 깨끗이 닦고 물로 씻어 건조한다. 로울러로 소프트 라운드를 골고루 펴 바르고 동판에 나뭇잎을 올린다. 기름이 올라오지 않는 종이를 얹고 프레스기를 돌려야 한다. 일반종이를 판위에 올렸을 경우 기름과 식물즙이 나와서 프레스기 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프레스기에 들린 식물이 판에 납작하게 붙어서 조심히 떼어내야 한다. 식물을 다 떼어내면 부식할 판이 완성 된다. 부식할 때 주의할 것은 소프트 그라운드¹⁷⁾는 일반그라운드랑 다르게 손에 잘 묻고 벗겨지기 때문에 조심성이 요구된다. 찍어 생겨난 이미지를 니들¹⁷⁾로 수정 보완한다. 판을 부식 통에 넣고 부식을 하게 되면 식물의 형태부분이 염화제이철에 부식이 되고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간에 따른 부식으로 톤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본인의 작업[작품4,8,9,10] 또한 2mm 동판을 위와 같은 소프트 그라운드 기법을 이용하여 판을 오래 부식시킨 후 자연스럽게 절단된 판과 가위를 사용하여 자연스런 식물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절단된 각각의 나뭇잎 판은 나의 기억의 회상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며 중첩을 통하여 투명성과 깊이감을 나타냈다. 본인의 [작품1][작품2][작품7].

아퀴틴트 기법(Aquatint)은 본인의 작품 배경에 깊은 흑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아퀴틴트는 판에 송진가루를 뿌리고 불에 달군다. 달구어진 송진가루는 노란색에서 투명으로 변하면 판을 부식 시킨다. 시간의 차이로 여러 톤의 흑색을 얻을 수 있다. 스크래퍼(scraper)를 이용하여 깎음으로서 흑색톤 조절로 공간적인 표현을 나타냈다. 본인의 [작품4][작품6].

모노프린트 기법(Mono Print)은 소프트 그라운드(soft-ground etching)을 하기 위해 준비한 나뭇잎이 말라서 아쉬운 마음으로 나뭇잎에 로울러로 물감을 바르고 찍어 보았다. 우연적으로 본인이 생각 했던 것과 달리 얻어지는 밀도감과 나뭇잎의 미세한 표현까지 얻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식물

17) 니들(Needle); 일종의 송곳, 송곳 보다 가늘고 날카로우며 단단하여 동판화에서 라인 긋기에 적합도록 만들었다.

을 찍는 모노프린트로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은 촉촉한 식물은 프레스기에 눌러 나뭇잎의즙이 나오기 때문에 나뭇잎의 수분이 거의 없어 졌을 때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작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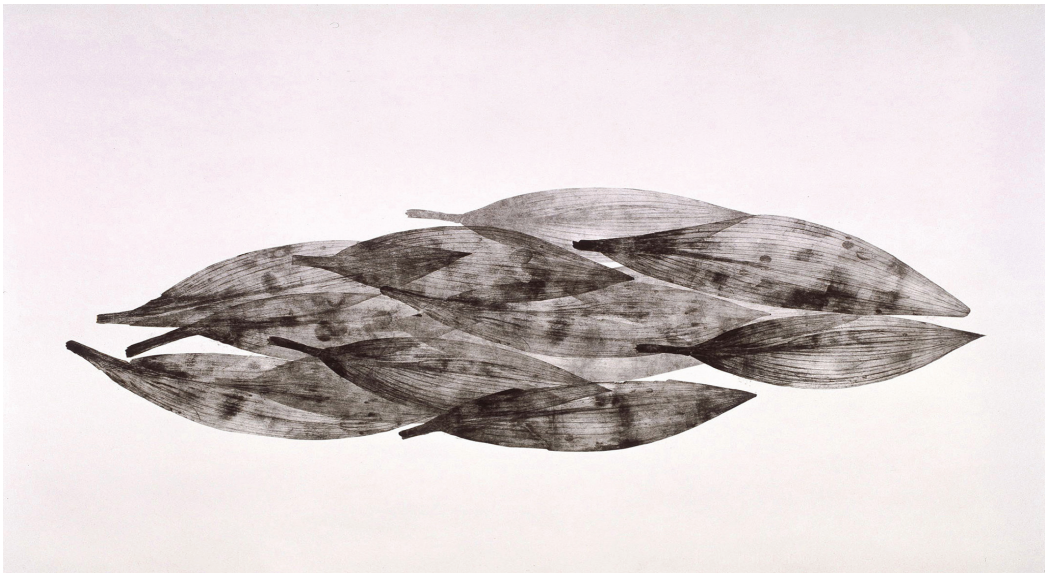
폴라 그래프(collagraph)는 두꺼운 종이에 니스를 여러 번 바르면서 판을 만들어 가게 된다. 니스를 두꺼운 종이판에 한겹 한 겹씩 바르면서 지나간 기억들이 한 장면씩 떠오른다. 이러한 니스를 바르는 반복적 행위로 기억을 상기 시키고 균일하게 판을 코팅한다. 이 위에 날카로운 송곳이나 니들로 긁거나 물성을 이용한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니스는 물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재료여서 자유롭게 물성을 표현을 하였다.[작품6,9] 물성을 표현 할 때는 니스의 건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완전히 건조를 하지 않을 경우 찍을 때 종지와 판이 붙어버리게 된다. 폴라 그래프는 오목판화(intaglio)기법과 볼록 판화(relief)기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전통판화기법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폴라 그래프는 자르기도 쉽고 물성도 표현하기 용이해 기억의 소재인 종이배, 종이배행기, 조랑말, 재봉틀을 표현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만든 판에 이미지를 드로잉하고 날카로운 니들, 칼을 이용하여 긁거나 오린 후 얇게 니스로 코팅을 한 후 건조시킨다. 니스를 이용하여 물성을 표현한다. 잉킹(Inking)을 통하여 손의 힘을 조절하고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며 본인을 바라보게 된다.[작품4, 6, 7, 9, 11]

목판화(woodcut), 볼록판(凸版)형식을 대표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판화이다. 목판은 원래 목판이 주는 자연적인 질감에서 따뜻한 정서와 회화적인 감수성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 본인은 어린 시절 식물을 가꾸고 재배하면서 자연(식물)이 익숙하게 되었다. 나무의 소재는 어린 시절 경험한 식물과의 교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어린 시절 나무를 가꾸고 생활한 기억의 잔상들이 하나씩 상기되며 기억을 새기는 작업을 한다. 목판화 작업은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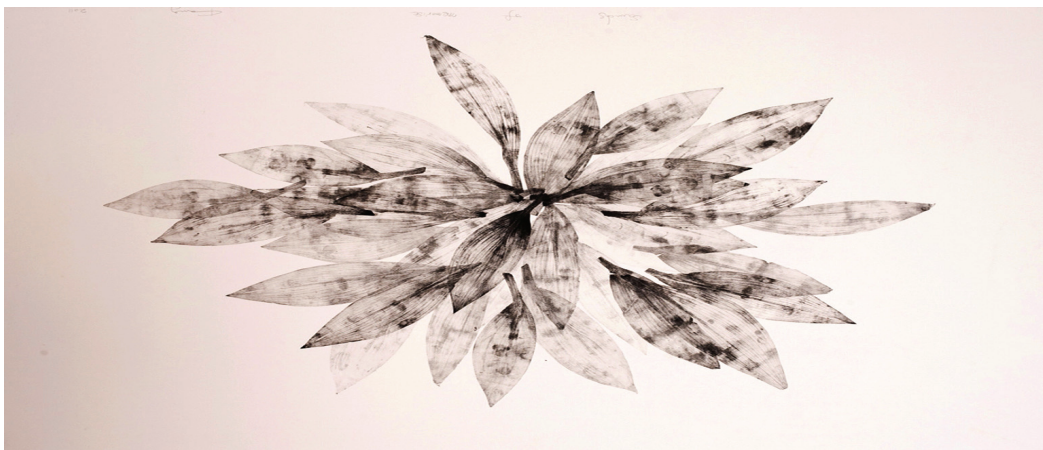
베니어판을 사용하는데 조각도의 느낌과 자연적인 소재의 느낌이 잘 어울린다. 베니어판에 좌우를 바꾼 스케치를 올리고 그대로 본을 뜬다. 새겨진 베니어판 위에 조각도의 느낌을 내면서 감정을 표현한다. 로울러로 잉킹(Inking)을 하고 바렌으로 문지른다. [작품 11]

자연이미지를 화면 속에 조화시키는 노력에서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지워야 하는 부분과 남겨야 하는 부분을 정확한 계산을 토대로 작업해한다. 식물이미지인 잔디의 한 부분을 가져와 칼의 느낌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 리듬감을 주고 작은 여백 부분으로 작품의 답답함을 없애고 생동감과 여유로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3. 작품 분석



[작품1] 〈Sounds of memories〉, 70x10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2] 〈Sounds of memories〉, 100x1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3] <Sounds of memories> , 100x1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1] <Sounds of memories>, 70x10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1]은 작품 속에는 나뭇잎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다. 소재인 나뭇잎은 지나간 기억, 추억을 상징 한다. 눈을 감고 손끝으로 살랑거리는 바람을 느낄 때면 지난 어린 시절 기억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 아카시아 나뭇잎 속에 묻혀 즐거웠던 날, 버찌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먹던 날, 벚꽃을 눈이라고 흔들었던 날, 바나나나무 잎으로 모자를 만들었던 날... 이런 경험으로 순간의 기억, 흐릿한 기억, 각각의 기억의 심상을 표현 하였다. 바람결을 통하여 기억이 흘러가는 느낌을 표현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지의 방향성을 만들었고 나뭇잎 하나씩 마다 이야기가 있도록 판의 표면을 부식의 차이를 두고 변화를 주어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판에 식물 이미지를 소프트 기법을 이용하여 찍어내고 부식하기를 반복하고 오려냈다. 흰 종이 위에서 불교의 108번뇌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판을 찍고 행복했던 기억의 그리움을 식물인 나뭇잎의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작품2] <Sounds of memories>, 100x1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2]는 행복했던 기억의 크기와 감정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기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순간 생각나는 기억과 추억을 시작으로 연결 고리를 걸어 기억은 계속 연상된다. 잊었던 사물이나 누군가를 보았을 때, 순간의 기억은 폭죽처럼 ‘팡’ 하고 확 터져 기억의 이미지와 그때의 감정은 되살아난다. 순간의 감정을 나뭇잎에 부여하고 각기 다른 나뭇잎의 크기와 색의 톤에

변화를 주어 중첩효과로 우연적인 연출이 되어 꽃과 같은 이미지가 되어졌다. 이런 우연성으로 정적인 느낌이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작품3] 〈Sounds of memories〉, 100x1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3]은 어린 시절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손녀들이 태어나면 시집 갈 때, 오동나무 가구를 가져가야 한다고 심으신 오동나무를 기억한다. 어느 해 여름날, 태풍이 치던 2층 옥상에 올라가서 울면서 부러진 오동나무를 붙잡고 있던 어린 언니와 어린 동생이 보인다. 그 오래된 오동나무는 결국 죽고 말았다.

이 작품은 태풍이 오던 그 날에 대한 기억을 오동 나무잎으로 표현 하였다.

옆으로 긴 직사각형은 프레임은 가지고 있는데 옥상을 의미한다.

색의 톤 조절을 이용하여 태풍의 느낌과 중앙부분을 무채색인 흐린 톤을 표현하여 시선의 처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원형 모양으로 회오리바람을 형상화시킨다. 무채색을 이용하여 더욱 지나간 추억을 가중시키고자 하였다.



[작품4] 〈Sounds of memories〉 , 100x7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Aquatint, 2011

[작품4] 〈Sounds of memories〉, 100x7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Aquatint, 2011

[작품4]는 식물의 반복적인 이미지로 울창한 숲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평면적인 화면에 공기가 흐르는 듯 느낌을 주기 위해 배경인 검정색의 톤을 달리하여 공간감을 표현 하였다. 이런 공간감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 기억의 회상을 돕고자 나뭇잎 속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

나뭇잎이 들어 있는 프레임은 어린 시절 기억하는 특정한 시간의 세계를 의미한다. 흰 여백에 혼자 있는 조랑말은 어릴 적의 기억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나와 지쳐 있는 현대인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위로’의 상징이다.

어린 시절 자연에서 지낸 흙 놀이에서 착안하여 조랑말을 황토색으로 표현 하였다. 화면에서 나뭇잎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세계이며 또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본인을 위로하는 조랑말과 함께 표현하였다.



[작품5] 〈Sounds of memories, 100x70cm〉 , mono print,
Collagraph,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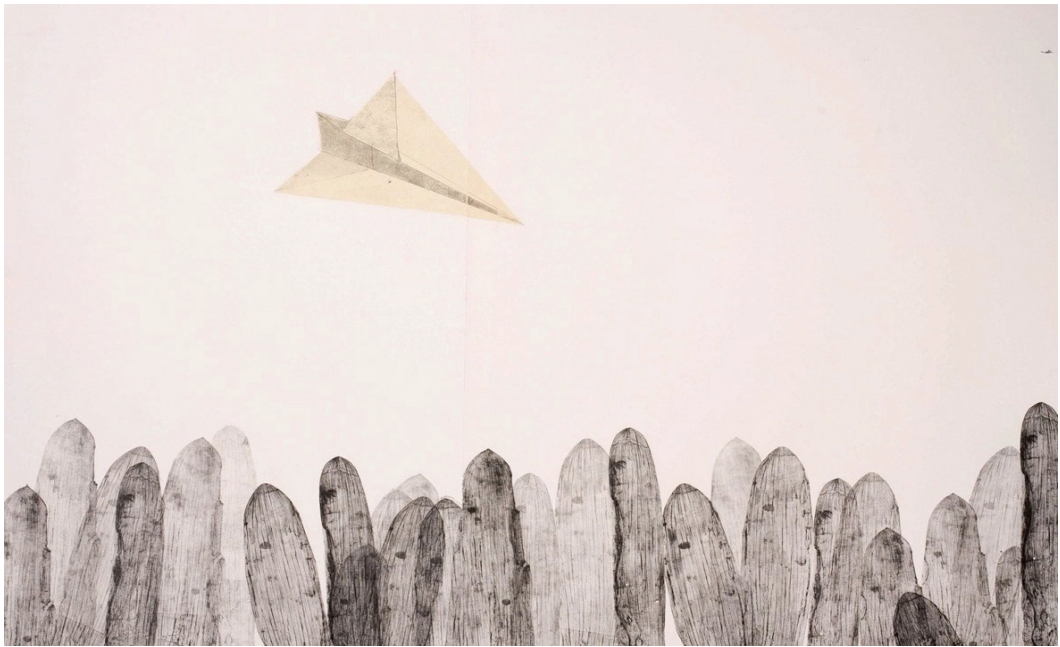
[작품5] 〈 Sounds of memories〉 , 100x70cm, mono print, Collagraph,
2011

[작품4]가 어린 시절 본인이 기억하는 특정한 시간의 프레임을 사용 하였다면 [작품5]는 프레임을 없애고 특정한 기억의 시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확대의 의미이다. 나무 사이사이로 다양한 기억들이 숨어 있고 여백에서 여운을 의도하였다. 세로 화면은 관객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 의도이며 위에 있는 나뭇잎 이미지와 조랑말의 관계는 상호 공존하는 형태를 표현하여 다양한 기억에 대한 추억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나뭇잎에 직접 잉킹을 하여 찍고 같은 잎으로 다시 한번 찍으므로 씨 톤의 조절을 표현하였다. 실제와 같은 나뭇잎으로 생동감을 붙여 넣었다. 식물의 이미지에 검정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억에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보았다. 조랑말에 푸르스름한 색으로 표현하여 숲 속에 있는 느낌을 살려 표현하였다.



[작품6] 〈Sounds of memories〉, 100x7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Aquatint, 2011



[작품7] 〈Sounds of memories〉 , 100x13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2011

[작품6] 〈Sounds of memories〉, 100x7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Aquatint, 2011

[작품 6]도 [작품4]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간의 추억을 표현하기 위해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넣었다. 프레임 안 중심부분의 톤을 외곽의 톤과 달리 하여 시선 처리 방향을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지게 유도하였다. 기억이 일시적으로 ‘확’ 터지는 느낌을 의도하였다.

조랑말은 물성을 띄고 있다. ‘위로’의 상징 이미지인 조랑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양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의 위로의 이야기이다. ‘슬픔에 대한 위로’ ‘고통에 관한 위로’ ‘외로움에 대한 위로’ ‘격려의 위로’ 인 것이다. 또한 조랑말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것은 위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시간을 암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작품7] 〈Sounds of memories〉, 100x130cm, Soft-Ground etching,
Collagraph, 2011

[작품7]은 작품 속에 종이비행기는 희망과 바람을 상징한다.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동경과 회귀를 가지고 있는 ‘소박한 희망과 바람’을 말하고자 하였다. 소박한 바람이 하늘을 떠돌다가 각각 가지고 있는 흐릿하고 다양한 기억들을 만나게 된다. 이 기억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흐릿한 기억일 수도 있고, 기억이 전부가 아닌 조각일 수도 있다. 나뭇잎 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가로로 나열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기억의 잔상을 표현하며 톤의 변화로 깊이 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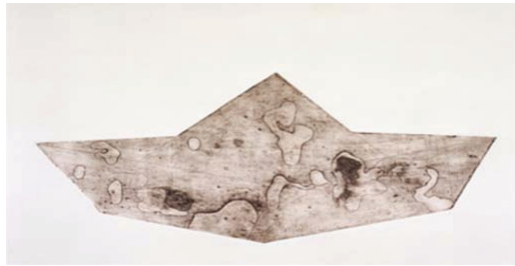
[작품8] Sounds of memories, 60x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8] < Sounds of memories >, 60x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 속에 이미지는 상추로 기억을 전달한다. 상추의 형태는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상추에는 많은 주름과 주름으로 면을 이룬다.

이런 상추의 주름과 주름에서 어린 시절 시계정원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세월을 보게 되었다. 세월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동색을 사용하여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만들었다.

어린 시절 본인에게 자연의 감성과 지혜를 주셨던 할아버지가 상추라는 매개체로 표현하였다. 배경색인 황금색을 보게 되면 옛날부터 황금은 영원함을 간직하는 보석이어서 유럽의 왕이나 우리의 선조들은 황금을 착용하기도 하고 집착하였다. 황금은 부유하고 귀한 보석이다. 보석의 귀한, 특별한 것을 반영하여 배경색에 황금색을 표현하여 할아버지에 대한 영원한 마음을 그리고자 하였다.



[작품9] 〈Sounds of memories〉, 30x142cm, Soft-Ground etching
30x60cm, Collagraph, 2011



[작품10] 〈Sounds of memories〉, 60x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9] <Sounds of memories>, 30x142cm, Soft-Ground etching,
30x60cm, Collagraph, 2011

[작품9]는 [작품8]의 연작의 작업 한 그림이다.

상추로 표현한 이 작업은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작업으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
기를 찾을 수 있다. 삶에 대한 역경과 고난 기쁨을 상추의 자연적인 형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자연을 대하는 마음과 인생이야
기를 형태의 반복과 리듬감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적갈색의 상추들은 지나
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어 세월을 상징한다. 또한 쓸쓸함과 적막한 느낌을
부여하였다. 수평구도는 고요하며 정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안정감과 평안함
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10] <Sounds of memories>, 60x60cm, Soft-Ground etching,
2011

[작품10]사진에서 가져온 듯 한 작품 속 이미지는 자연의 한 부분을 가져
와서 실제처럼 느껴지게 의도하였다. 본인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은 이미
지 이다. 사실적 이미지는 바람을 형성화하고 무채색을 사용하여 쓸쓸함과
외로움을 나타내었다.



[작품11] <Sounds of memories-sewing machine> , 70x100cm,
Collagraph ,woodcut, 2010

[작품11] <Sounds of memories-sewing machine>, 70x100cm,
Collagraph,woodcut, 2010

[작품11]은 자연적인 소재인 목판화로 잔디 한 부분을 가져 왔다. 목판화는 자연의 요소로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판 종이다. 본인은 이러한 판 종을 이용하여 자연이미지인 풀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였다. 대지에 사는 풀은 나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할머니이다. 잔디를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떠오른다.

생동감과 답답함을 없애기 위하여 조각도로 판을 깎아 만들어 리듬감을 주었다. 재봉틀과 흑색을 사용하여 과거의 회상 느낌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의 작은 이미지인 재봉틀은 과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미지이며 그리움 마음이다.

Ⅲ. 결 론

기억이란 단순히 경험되어진 사건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사성을 포함하는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대상에 남겨진 흔적에서 기억의 잔상을 보고,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물안의 기억뿐 아니라 그 사람, 사물과 연관된 기억들이 연상 작용으로 상상하게 되어 진다. 즉, 일상에서 흔히 보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기억과 연관된 사물들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대상을 통해 예술적 상상과 조형적 요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과 무관심 속에 각박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자연(식물)을 보면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본인은 자연(식물)을 볼 때, 자연과 교감하던 어린 시절의 감정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고, 그 시절에 느꼈었던 감정으로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통, 슬픔을 위로 받고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에게 과거의 한 시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 활동은 본인의 자아를 발견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다.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한 회상기억으로 감정표현의 매개체로서 자연(식물)은 본인의 기억과 닮았다고 생각을 하였다.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기억도 경험에 의해 생겨나고 시간이 흐른 뒤 소멸되며, 또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기억이 생성된다. 자연(식물)을 볼 때, 기억의 감정은 회상을 유도한다. 이것은 행복한 기억을 되살리고, 행복한 기억은 본인을 편안함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도한다.

작품 속의 이미지들은 반복적인 중첩의 형태로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

다. 어린 시절 보편적인 놀이인 종이배, 종이비행기, 조랑말을 기억의 매개체로 기억의 회상을 전개하여, 감정의 회상을 가중시켰다.

반복적인 중첩과 무채색의 이미지로 여백을 상상의 대상으로 유도하였으며, 중첩된 표현과 여백의 사이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겼으며, 관람자로 하여금 사색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과 작업 내용의 연결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조형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다각적인 표현연구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참고 문헌

국내서

- 김영효. 『베르그송 철학』. 민음사. 1991.
김현주. 『피카소의 청색시대』. 열화당. 1990.
안도현. 『연어』. 문학 동네. 1996.
최민. 『기억과 망각』. 문화 과학. 2000.
최영훈.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90.

번역서

-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꿈꿀 권리』.(이가림, 역). 열화당. 1980.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미술과시지각』.(김춘일, 역). 미진사. 1995.
피터 컨벤시. 로거 하리필드. 『시간의 화살』.(이남철, 역). 범양사. 1994.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고려원. 1990.
존 듀이(*John Dewey*).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 책 세상. 2003.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문명속의 불만』. (김 석희, 역). 열린 책들. 2003.
칼 융(*Carl G. Jung*). 『사람과 상징』. (정영목, 역). 도서출판 까치. 1995.
김바라세이고. 『동양의 마음과 그림』. (민병산, 역). 새문사. 1999.

ABSTRACT

Nature of the medium Forth recall memory

– Focused on my works –

Kang, Min Jung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and analysis of my printing works titled 'Sound of memories' made between 2008 and 2011 in the aspects of the content and visuality for the degree of MA.

People keep diverse kinds of memories from their experiences in the time of their living. The memorie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he time and go through the moment of pausing, passing and deforming. Also, an object becomes only thing that cannot be replaced with anything else when one faces with an object relating to a memory. I have been grown up in the environment of nature with unique and diverse experiences related to plants. This

experiences in my youth have stayed in my unconsciousness and influenced me as inspirations for making works of art.

When facing with nature especially plants in my trivial life in the days, I become to remember the forgotten but happy time with nature and this memory and emotions become a background of making my works.

The difficult time causes us to think of the happier time when we satisfy and feel comfort in the past since we have been living in the harsh and rapidly changing life in the modern society. This state of remembering back makes psychology of returning.

The diverse kinds of nature or especially plants were used for the subject matter of my works in order to project my inner side and symbolize my memory of the childhood.

The technique of the soft-ground etching has been made for details of the plants' images and they are not reenacted as the forms in nature but rather expressed as in my memory of the childhood in nature. Moreover, the images of my memory became closer to nature by making them in the wooden panels, the materials made out of nature. The memories of happiness in my childhood came out with the feelings of time by piling the continuous layers and the empty spaces made there maximized imaginations and lingering imageries from the sense of longing. This spaces of longing were motivated by my feelings experienced in the cloudy weather, so painted with achromatic colors.

This thesis talks about symbols and expressions in my inner side in the subject of nature (plants) and induces the understandings with the photos and descriptions of the works.